

## 세상 호령하는 호랑이 기상으로 경인년 광주·전남 운명 바꾼다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올해 광주·전남의 과제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저탄소·친환경 개발을 통한 고품격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한편 일련의 국제이벤트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는 등 10가지 이슈가 꼽힌다.

광주R&D 특구지정은 미래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인프라의 확충 여부를 결정짓는 광주시의 최대 이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듭 지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의 현재는 상반기 최대 관심사다. 3~4월께 문화전당 건립부지 내 옛 도청 별관의 존치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는 26일 출범하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의 순환 여부를 U대회의 성공 개최와 직결되는 현안이 다. 새야구장 건립문제는 돛구장 건

광주·전남 2010년 10대 이슈	
1 광주 R&D특구 지정	6 광주비엔날레 개최
2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7 F1 자동차대회 개최
3 2015 U대회 준비	8 영산강·셋강 살리기
4 새 야구장 건립	9 여수세계박람회 추진
5 광엑스포 성공 개최	10 혁신도시 조성 본격화

립을 제안한 포스코 건설 측이 이달 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그 조건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4월2일 개막하는 '광주 세계광엑스포' 성공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오는 9월3일 개막하는 제8회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 3대 비엔날레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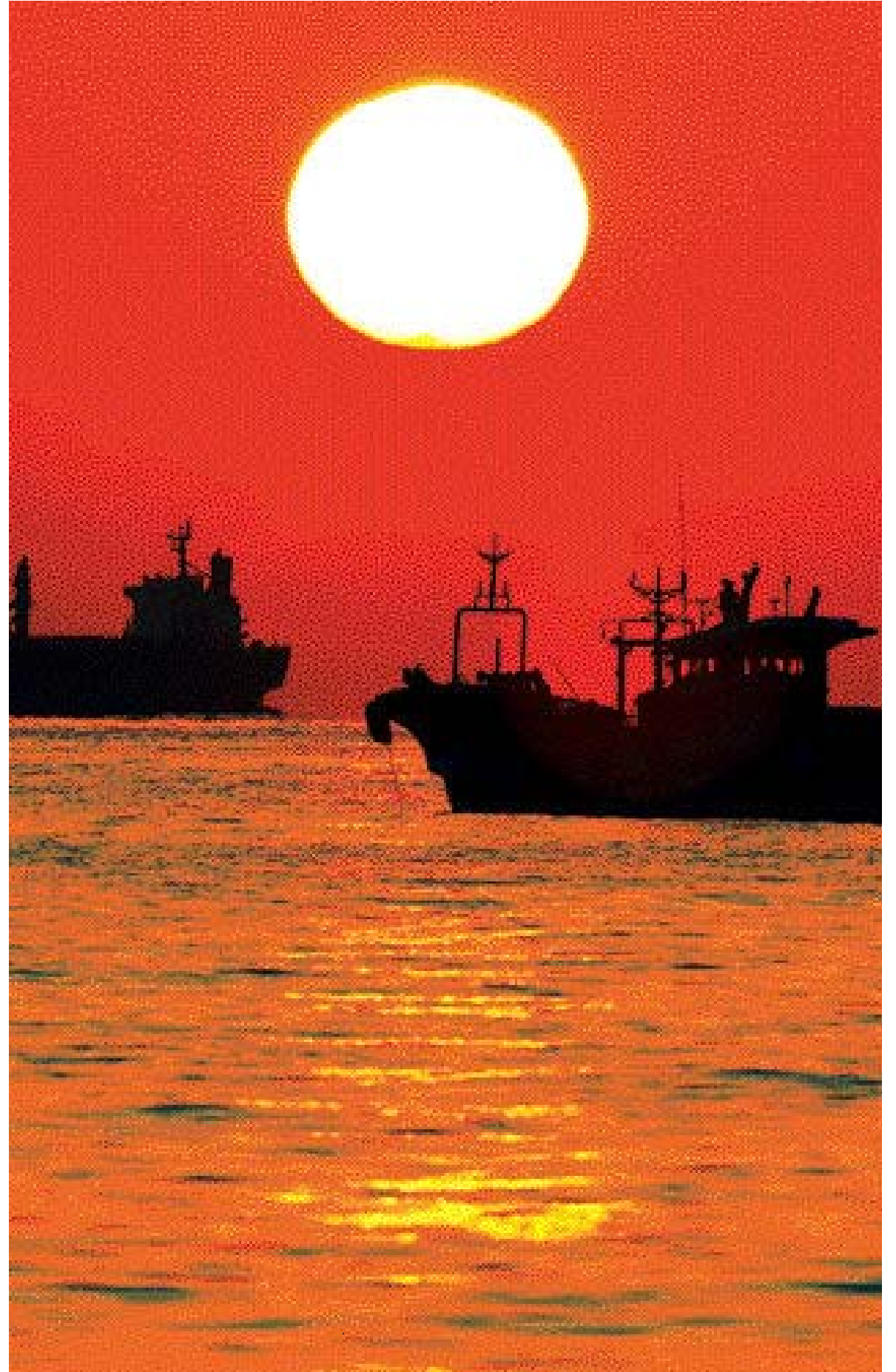
진입 가능성을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도에선 세계 최대규모의 모터스포츠대회인 F1대회 성공개최가 단연 최대 이슈다. 10월 영암에서 치러지는 F1경주가 성공하기 위해선 30여 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참가자 및 관광객 축소 마련과 함께 1.8km(56

만 평) 규모의 F1경주장 사후활용방안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영산강 살리기사업은 친환경개발을 통한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되느냐가 관심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800만 명으로 예상되는 관람객과 박람회 종사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확충과, 여수신항 일대 174만㎡의 부지에 조성되는 박람회시설들의 차질없는 착공이 기대된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최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본사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숨을 돌리는 듯한 상황이지만 17개 이전대상 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다. /홍행기·윤영기 기자 redplane@



光州日報 2010 지방선거 유권자 13,642명 여론조사 ▶ 4~7면

##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강운태·박준영 선두

### 시교육감 안순일 도교육감 김장환 1위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강운태 의원과 박준영 현 전남지사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 올해 처음 직선으로 치러지는 광주·전남 교육감 후보로는 안순일 현 시교육감과 김장환 전 도교육감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 5개 구청장과 전남 22개 시군의 시장·군수 지지도 조사에서는 대부분 현직 단체장들이 앞섰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광주일보가 광주·전남 유권자 1만3천6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및 ARS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지역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시장·전남지사·교육감 후보자들의 경우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구립 28일 광주·전남 각각 500명씩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했으며 광주지역 구청장과 전남지역 시장·군

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ARS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가 구립 26~27일 인구비례에 따라 350명~560명씩 총 1만2천642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시장 선거구도는 지난해 6월 강운태-박광태 양강구도에서 2강3중구도로 재편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운태 의원이 24.0%로 선두를 달렸고, 박광태 현 광주시장이 15.2%로 그 뒤를 쫓으며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어 광주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7.6%, 이용섭 의원 6.8%, 전갑길 광산구청장 5.5%로 중간그룹을 형성했다. 양형일 전 의원은 2.9%였으며,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1.9%), 조영택 의원(1.3%) 순이었다.

광주시장 인지도 조사에서는 광주 시민 10명 중 9명(90.5%)은 박 시장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단연 선

두'로 나타났다. 이어 강 의원 63.5%, 정 전 장관 62.0%, 전 청장 50.5% 등의 순이었다.

전남지사 후보 지지도에서는 박준영 현 전남지사가 30.2%를 기록해 높은 인지도와 함께 지지율에서도 앞섰다.

주승용 의원은 11.9%, 이석형 합평군수 6.4%, 최인기 의원 5.4%, 이 낙연 의원은 5.3%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이 군수가 군수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며 전남지사 선거에 뛰어들었고, 주 의원은 10일께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지지율 변동이 주목된다.

전남지사 후보 인지도에서도 박 지사가 77.0%로 전남도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이 의원 49.4%, 주 의원 47.9%, 최 의원 42.1%, 이 군수 36.7% 순이었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안순일 현 시교육감이 13.7%, 이정재 전 광

주교대 총장이 12.1%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윤영월 광주예교 교장(5.1%)이 3위를 기록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김장환 전 도교육감이 10.1%의 지지율로 가장 앞서고 서기남 전남도교육위원 7.5%, 신태학 전 여수교육장 7.2%, 윤기선 전 전남교육위원장 6.2%, 정찬중 전 무안교육장 6.0%순이었으나 모두가 오차범위(±4.38%) 내에 포함됐다.

<2면으로 계속>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희망으로 솟구쳐라

을 털어내고 모두가 화합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

경인년 새해가 슬픔, 좌절로 얼룩졌던 기축년을 밀어내며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여수시 돌산 우두리 해안에서 신새벽을 붉게 물들이며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찬 한해가 되길 소망해본다. 새해에는 목은 갈등과 불신을 털어내고 모두가 화합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 /위직량기자 jrvi@kwangju.co.kr

### 신년특집 지면안내

사자성어로 본 경인년	3면	아트마켓이 뜬다	19면
광주시정·전남도정	8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작	20·21면
남극 탐사 나선 아라온호	11면	한반도 호랑이 역사	22면
2010 지역경제 전망	13면	팔도 역술인이 본 운세	23면
오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	16·17면	기아 타이거즈 호랑이들	30면
광주·전남 대해부	18면	※ 2일(토)자 광주일보 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光州日報 임직원 일동

휴일 날씨	1(금)	2(토)	3(일)
	☁ 눈 온뒤 맑음 -1/-6℃	☀ 구름 많음 -4/5℃	☀ 구름 많음 -2/5℃

